산업단지 물류 네트워크 구축

산자부, 시화·창원산업단지 공동물류센터 서비스 개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설립된 시화지구 공동물류지원센터 개소식이 김종갑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이효진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및 입주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3월13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개최됐다.

산업자원부와 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시화·창원물류센터는 지금까지 산업단지에서 개별 입주기업별로 이루어졌던 수배송 및 재고관리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기업간 정보화, 공동화된 수배송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시화단지는 공동물류센터 규모가 대지 1300평에 건물 400평이고, 창원단지는 창원전시장 본관 700평을 활용했다.

공동물류센터 설치에 따라 공단 입주기업의 개별직송 관행 개선 및 물류 공동화 분위기 확산, 산업단지별 공동 수배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고질적인 다단계 운송주선 관행 개선, 참여기업들의 표준 파렛트 등 물류장비 및 물류정보 등 물류표준화 효과 확산,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산업단지간 효율적인 B2B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 물류포탈 구축기반 조성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산업단지공단은 앞으로 제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공단의 물류체계를 정보화, 공동화하기 위한 산업단지 공동물류 시범사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단지 공동 수배송 사업은 정부 34억원, 공단 94억원 등 128억원을 투자하는데, 2001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5년 동안 실시된다.

산자부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징인 수도권의 반월, 시화, 남동공단 등 국내 최대인 8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공동물류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핵심역량을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14>